2006년 9월 21일

감지중국-한국행 축하 메시지

중국의 문화예술과 경제를 소개하는 '감지중국(感知中國)-한국행'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양국관계는 수교 이후 지난 14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. 중국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고, 수교 당시 한 해 20여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크게 늘어 하루 1만 명 이상이 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.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문화교류 역시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

특히 '한·중 교류의 해'인 내년은 두 나라 간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이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우호협력의 길을 더 크게 넓혀가야 합니다.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더 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. 그래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.

이번 행사의 큰 성공을 기원하며, 내년 중국에서 있을 '다이내믹 코리아' 행사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